

류혜경·허정, 모교 전남대학교에 발전기금 기부

〈총동창회장〉

〈에덴병원장〉

각각 2억·5000만원…개인별 누적금액 약 5억원

“자랑스러운 동문…교육·연구환경 개선에 사용”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학교에 발전기금이 답지하고 있다.

15일 전남대에 따르면 류혜경(광주서광병원장) 전남대총동창회장이 지난달 29일 전남대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로 류회장의 누적 기부액은 5억원을 넘어섰다.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1985) 및 박사(1988) 과정을 수료한 류회장은 현재 서광병원장과 학교법인 인성학원 이사장으로 지역 의료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내과 전문의로서 환자 중심의 따뜻한 진료 철학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지역 의료 현장에서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에 기부한 2억원은 전남대의 교육 및 연

구 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류 회장은 ‘광주 65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남편 서해현 원장(광주 16호)과 함께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10호’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허정 에덴병원장도 지난 2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허 회장은 1976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광주 에덴병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져온 산부인과 전문의다. 에덴병원은 자연분만 문화를 선도하며, 한국여성민우회로부터 ‘아름다운 병원’, 유니세프로부터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받는 등



최근 류혜경 전남대총동창회장이 전남대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기부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역 의료의 품격을 높여왔다.

허 회장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직접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며, 2022년에



허정 에덴병원장이 최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부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는 국민훈장을 수훈했으며, 올해 광주시민의 날에는 ‘광주시민대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총 4억74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 2025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수상

ESG경영 확산 공로 인정받아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최근 개최된 ‘2025년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ESG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은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관·기업·인물·브랜드 등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유한 사업의 특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청정전남 구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상생 가치 확대 △투명·소통 경영으로 도민신뢰 제고 등 ESG경영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사는 2023년 ‘환경·사회·미래를 생각하는 든든한 ESG 도민 파트너, 전남개발공사’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ESG경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의 모든 활동을 지속가능한 전남도 미래와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영광 약수에 4.3MW 규모의 전남 최초 해상풍력 상업발전소를 개시했으며, 지역상생 가치 실현을 위해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전남



형 만민주책 사업’을 통해 저출생·지방소멸 대응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산하 19개 공공기관 ESG협의체를 출범시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ESG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내부적으로는 ESG위원회와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투기방지시스템전남개발공사, 2025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수상팀 도입을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와 청렴·윤리경영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경영은 글로벌 기업의 시대적 흐름으로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청정에너지 리더로서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통해 전남도의 발전과 도민행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열 기자 hoibul@gwangnam.co.kr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최근 청소년과 함께하는 ‘광복의 길 걷기’ 체험활동을 국립대전현충원과 독립기념관에서 진행했다.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 ‘광복의 길 걷기’ 체험활동

지역 학생들과 국립대전현충원 방문…묘역 참배·정화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최근 청소년과 함께하는 ‘광복의 길 걷기’ 체험활동을 국립대전현충원과 독립기념관에서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광주 대성여자중학교 학생과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학생, 국가유공자 가족과 군인·경찰 가족 청소년 등 총 4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애국지사 제2묘역과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일반 사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또 비석 읽기 활동을 통해 각 애국지사의 이름과

공적을 소리 내어 읽고 묘비를 정성껏 닦으며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독립기념관으로 이동해 전시관 탐방과 역사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족자존과 독립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근우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직접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소방,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남소방이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물놀이 안전사고 등 올해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지난 13일 22개 시군 소방서장 지휘관 회의를 열어 여름철 도민 안전 확

보를 위한 비상대응태세 확립을 지시했다.

전남소방은 태풍·호우 등 기상 특보 발생 시 선제적으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610개소와 지하차도 24개소를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193개 구급대에 열

음조끼, 식염포도당 등 9종의 폭염 대응 장비를 비치하고, 팜플렛을 예비출동대로 운영해 폭염 대응 구급대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119신고 폭주를 대비해 상황실 비상접수대를 기존 30대에서 50대로 증설하고, 유관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최용철 본부장은 “개인보호장비 착용 등 현장안전관리 원칙 준수로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PEOPLE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서구 금호1동 새마을협의회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

광주 서구 금호1동 새마을협의회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15일 서구 금호1동 새마을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부녀회와 함께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사랑의 섬김봉사’ 행사를 진행했다.

다가오는 여름철 어르신들의 가려워 회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 100여명을 초대해 영양 보충과 기력 회복은 물론, 지역 사회 돌봄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회원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이틀에 걸쳐 장을 보고 조리한 음식과 직접 담긴 김치 등을 전달했다.

새마을협의회 관계자는 “어르신들께 건강한 여름과 따뜻한 관심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 회원들과 뜻을 모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 사회의 온정이 어르신들께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찾아가는 건강캠페인 전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광산구 더불어樂도인복지관 회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간접 광주전남지부는 뇌파·맥박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검사와 1:1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평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검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접 광주전남지부는 건강검진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건교육, 성급 기타,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

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신장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장동 대광로제비아이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운세 (음력 5월 21일)

48년생 지금 회전에 이상이 걸릴 운
60년생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된다
72년생 유혹에 동조한다면 될 일도 안된다
84년생 작은 것을 소중히 다루야 얻는다
96년생 뒷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려라

51년생 불일치로 인한 폐단이 보인다
63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형통 하리라
75년생 재물 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
87년생 가족들로 인한 경사가 따른다
99년생 몸이 상할 우려 있으니 다투지 마라

54년생 낭비를 하지 말고 아껴 두라
66년생 오랜만에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78년생 계획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라
90년생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57년생 성질을 참지 못해 불화가 일어난다
69년생 먼저 손해보고 뒤에 얻는 운
81년생 잃는 성공하지만 갈등이 생긴다
93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

49년생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된다
61년생 방법을 달리 하다보면 좋은 결과
73년생 크게 감동 받게 될 것
85년생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
97년생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 것

52년생 경험을 살려서 대처하라
64년생 겸손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76년생 행운이 있는 날이지만 지인을 조심
88년생 귀인이 찾아와 도와주는 운

55년생 상하간 불기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67년생 신중하게 말해야 문제가 없다
79년생 배려하다보면 일도 풀리리라
91년생 업무에 실수를 많이 하는 날

58년생 차양이나 도로상의 조심하라
70년생 땅 짚고 헤엄치는 날
82년생 별것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94년생 득 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남의 재물을 탐치니 마라
62년생 어려움이 닥치니 도리가 없다
74년생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때
86년생 부흥산 거래 운
98년생 이성으로 인한 근심수가 있다

53년생 빛 속으로 삼심하게 되리라
65년생 강력히 추진하라
77년생 귀하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89년생 결정적인 순간이니 주목하라

56년생 주변에 말을 귀 담아 들어라
68년생 매사가 순조로울 것이니 안심하라
80년생 지금은 휴식이 필요한 때
92년생 바라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59년생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
71년생 이로운이 전개될 것
83년생 옳은 일에 나선다면 주의하라
95년생 기다리는 마음은 가졌으니 성공